

# 전북도-중국 장쑤성, 국제협력 의견 모아

### 화상회의로 '한중문화교류의 해' 적극 활용 단계별 교류사업 추진 등 논의

올해 전북도 국제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전북도와 중국 장쑤성 국제교류 부서간 화상회의가 25일 열렸다.

코로나19가 지속돼 국가기간 이동이 제약 받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중문화교류의 해'(2021~2022)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자, 전북도와 장쑤성 국제교류부서장이 연초부터 머리를 맞대고, 국제협력의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다.



올해 전북도 국제교류의 시작을 알리는 전북도와 중국 장쑤성 국제교류부서간 화상회의가 25일 열렸다.

켜 내년에는 대면으로 규모 있게 진행하는 단계별 추진방식에도 상호 의견이 모아졌다.

전북도와 장쑤성은 자매결연을 맺은 지 27년이라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간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왔다.

작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위로서한과 방역물품을 보내주는 등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줬다. 이는 지난 2019년 전북도와 장쑤성이 자매결연 25주년을 계기로 양 지역 단체장이 상호 방문하고, 굵직한 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성된 전략적 우호협력 분위기가 한뼘 한 것이다.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전북도는 코로나 이후의 국제교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협력의 의연과 내연을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해나가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황을 감안해 대부분 교류사업을 소규모,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이를 확대시

## 전북체육회, 체육 발전 위한 임원진 재편 착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임원진 재편에 나섰다.

25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들로 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도 체육회 임원은 31명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치러진 회원총회 단체 회장 출마에 따른 임원 중 일부가 작을 사임했다.

도 체육회는 규약 개정에 따라 임원을 최대 70명(부회장, 감사 포함)까지 구성할 수 있다. 현 임원진에 합류 할 신규 임원 선임에 착수한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임원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조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균형있는 임원 구성을 하기 위함이다.

이에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 비체육인 가운데 전북 체육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인사도 임원으로 선임 할 예정이다.

정강선 회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난해 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전북 체육의 변화와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바른 체육행정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체육, 행복한 도민, 빛나는 전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안전하게 도착한 AZ 백신 운반 차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전주시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운반하는 의약품 운반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전북도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도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도는 기존의 희귀질환 지원대상을 기존 1,038개에서 원추각막 등 72개 질환을 포함해 총 1,110개 질환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을 말한다.

통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

환 치료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을 산정 특례 질환으로 지정, 환자 본인의 부담 비용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전북도는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 10%에 대해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간병비, 특수 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전북도는 당초 2월 말까지 예정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은 지난 10일 부안군 육용오리 사육농가와 18일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 야생조류의 잇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겨울 철새가 북상하지 않고 고창군 동립저수지에 아직도 3만수 정도 서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방역 기간에 추진한 가축방역상황실(25개소)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제한을 2주간 연장하며, 철새도래지 매일 소독, 방역취약 농가 예방·검사 강화,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 등의 방역조치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

또한,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 및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소·돼지 분뇨의 이동 제한, 도축장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좋은 여행지 전북

### 도·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반 걷기길 6곳 선정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전북지사장 박정웅, 이하 공사)는 반려동물 동반여행의 수요를 국내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로 전환하고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안심 걷기 길, 눈치보지 마시게 길(가칭)'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심 걷기 길, 눈치보지 마시게 길(가칭)'은 14개 시·군 추천방식을 통해 주차공간 여부와 주변 비대면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반려견 비동반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답방객이 적은 지역 위주로 엄선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은 ▲새만금광역탐방로(김제시), ▲요전생태습지공원 애견공원(남원시), ▲경천애인 징검다리길(완주군), ▲오수외견 관광지(임실군), ▲운일안반일안 숲길(진안고원길 9구간/진안군), ▲섬진강 예방천리마실길(순창군) 등이다.

전북도와 공사는 올해 상반기 내 '눈치보지 마시게 길(가칭)'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 반려동물 편의 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관심 관광객 및 이용객이 해당 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제공 어플에 등록하는 등 홍보를 통해 반려견 동반 여행객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이용가능 관광지 및 여행편의시설을 지속 발굴하고, 팹트화인증시설로 지정·관리함으로써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여행지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캠핑장, 농촌체험마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연계한 동반여행 테마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웅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의 관광산업에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시범 선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북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민·관 공동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2022년부터는 전국 단위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하반기에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반려동물 캠프 페어 개최 및 연계 여행상품 개발도 계획 중이다"며 "전북도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원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지역 스타기업' 모집

###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 3월 29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전북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파급력을 갖춘 '2021년 전북지역 스타기업'을 모집한다.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6개사를 선정해 지역 성장 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전북도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있고,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50억~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등 특성화 지표를 충족해야 한다.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전담 PM(Project Manager)이 스타기업에 배정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 지원을 받게 되며, 기술혁신 활동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스타기업으로 지정되면, 차년도 상용화 R&D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이 주어지며, 평가를 거쳐 선정되면 최대 2억원 내의(2년)의 상용화 R&D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15개 기업에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경기침체 극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매출액 97억원 증가와 113명을 신규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29일까지이며,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자격심사, 기업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총 15개사를 전북도 스타기업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지역 내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